

1960-1970년대 농촌, 농민 소설의 기획과 전개*

- 『창작과비평』과 김정한의 소설들을 중심으로 -

김 우 영**

자 례

1. 1966년, 『창작과비평』과 김정한
2. 이중 소외되는 농촌과 (농촌)민중의 비극성
3. 『창작과비평』의 농촌, 농민 소설의 기획과 전개
4. 농민 개인의 (자율적) 저항과 새로운 농촌, 농민 소설의 대두
5. 마무리를 대신하여

국문초록

본 연구는 1960년대-1970년대 중반에 걸쳐 『창작과비평』(이하 본문 내 『창비』로 지칭)에서 태동, 전개되고 발전한 한국 문학의 농촌, 농민소설 논의를 『창작과비평』 속 김정한의 작품을 통해 연구하는 것을 목적

* 이 글은 2020년 10월 ‘요산문학축전’에서 발표한 발표문을 수정한 글임을 밝힌다.
부족한 발표문을 읽고 토론으로 도움을 주신 토론자 선생님과 투고 뒤 논문 수정에 도움을 주신 심사자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린다.

** 세종대학교 대양휴머니티칼리지 초빙교수

으로 한다. 1966년 1월 『창작과비평』의 창간과 그해 10월 김정한의 문학 장 복귀 「모래톱 이야기」(『문학』 6호, 1966.10)는 각각 독립적으로 발생한 일이었지만, 전후 한국문학 내 리얼리즘 문학의 흥기와 부흥을 의미하는 신호탄 같은 것이었기에 일련의 ‘사건’이라 부를 만한 것이었다. 『창작과비평』 편집인들의 회고에서 확인할 수 있듯 『창작과비평』의 편집인들에게 김정한은 잡지와 뜻을 함께해주는 든든한 문학 동료이자 일제강점기 리얼리즘의 명맥이 해방 후에도 지속되고 있음을 일깨워주는 살아있는 문단 원로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이었다. 특히 농촌, 농민 소설-민중문학-민족문학으로 이어지는 『창작과비평』의 주요 이론적 담론에 자양분이 되는 작품을 창작했음이 확인된다. 구체적으로 낙동강 인근에 삶의 근거지를 둔 농민들의 신산한 삶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 삶의 비극성을 구현해냈다는 점에서 로컬문학과 농촌문학의 유의미한 존재태를 보여주었다. 나아가 『창작과비평』의 새로운 농촌, 농민 소설 기획에도 주요한 참조점을 제공하고 있다.

주제어 : 김정한, 『창작과비평』, 농촌소설, 농민 소설, 리얼리즘 소설

1. 1966년, 『창작과비평』과 김정한

본 글은 1960년대-1970년대 중반에 걸쳐 『창작과비평』(이하 본문 내 『창비』로 지칭)에서 태동, 전개되고 발전한 한국 문학의 농촌, 농민 소설 논의를 『창작과비평』 속 김정한의 작품을 통해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필자는 『창작과비평』에 실렸던 『분례기』에 대한 연구를 통해 당대 『창비』가 펼친 농촌, 농민 소설 담론을 비판적으로 고찰한 바 있으며, 이 논문은 그 문제의식의 연장선 상에 놓여있다. 특히 신인이었던 『분례기』 작가 방영웅과는 달리 이미 1930년대부터 문단활동을 시작한 중견 작가

였던 김정환의 경우, 일제강점기로부터 해방 후 새로운 (리얼리즘)문학으로의 전회를 꿈꾸던 『창비』가 다시금 주목하지 않을 수 없던 작가였다. 특히 김정환이 작품의 주요 주제로 택하고 있는 낙동강 변의 농촌, 농민들의 신산한 삶의 모습은 새로운 농촌, 농민 소설의 기획을 통해 역사소설로서 농촌 소설로 나아가자 했던 『창비』의 필진들에게 주요한 영감을 주었음을 확인하고 이의 의미를 탐구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창비』가 야심차게 기획했던 농촌, 농민 문학의 전개 흐름에서 김정환 작품이 호명, 소환되는 양상에 주목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창비』의 농촌 농민 문학 담론이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 어느 정도 뼈대를 갖추기까지 김정환 문학과 의미있는 공명과 길항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현대문학에서 1960년대란 아직도 서술을 기다리는 공백과 결락이 많은 시기처럼 인식된다. 전후문학의 시대(1950년대)와 소위 모더니즘/리얼리즘의 구도가 안정화된 것으로 인식되는 1970년대 사이에서, 1960년대는 오랫동안 1950년대의 불연속적 연장이거나 1970년대를 예비하는 잉여의 시기처럼 여겨졌던 것이다. 그러나 주지하듯 이런 상황은 문학사를 10년 단위로 편의적으로 인식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문학사를 단절된 것처럼 인식될 우려를 낳는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다행히 최근 많은 연구들에 의해 1960년대가 갖는 불안정하지만 유연한 시기가 갖는 의미가 주목되기 시작한 점은 고무적이다. 특히 1960년대가 선험적으로 잉태하고 있었던 한국문학의 징후들이 다시금 재조명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¹⁾

이런 가운데 우리는 1966년 1월 『창작과비평』(이하 『창비』)의 창간과 그해 10월 김정환의 문학장 복귀의 장면 「모래톱 이야기」(『문학』 6호, 1966.10)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²⁾ 각각은 독립적으로 발생한 일이었지

1) 임환모의 글 「1960년대 한국문학의 분기현상」(『현대문학이론연구』 58, 2014.9)을 비롯, 권보드래·천정환의 저서 『1960년을 묻다』(서울:천년의 상상, 2012), 박대현의 저서 『혁명과 죽음』, 서울:소명출판, 2015) 등도 1960년대 문학장을 여러 각도로 조망하고 있어 주목된다.

만, 전후 한국문학 내 리얼리즘 문학의 흥기와 부흥을 의미하는 신호탄 같은 것이었기에 일련의 '사건'이라 부를 만 한 것이었다.

1966년 창간된 『창비』는 백낙청, 염무웅 등 외국문학 전공자들이 주요 편집인들로 이루어져있었다. 이들은 『창비』를 통해 서구 리얼리즘 이론의 번역과 소개를 기반으로³⁾ 한국문학에서도 리얼리즘적 전통을 새롭게 확립하고자 시도하였다.⁴⁾ '제3세계문학론', '민족문학론', '민중문학론'과 같이 굵직한 문학 담론들이 모두 『창비』를 통해 태동되었다. 이 과정에서 『창비』 주요 필진들이 리얼리즘과 관련한 새로운 담론들을 떠나감에 있어 그들의 문학, 사회 담론들을 지지하고 공명해줄 작가들이 필요했던 것은 물론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보수적 문협 체제에 반대하고⁵⁾ 이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기존 문단 데뷔 방법으로 행해졌던 추천제가 아닌 공모를 통해 신인을 발굴하려 했으며,⁶⁾ 기존 작가에 대한 재인식과 의미 부여를 통해, 많은 작가들을 『창비』의 자장 안에 끌어들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물론 지금의 관점에서 『창비』 창간 후 한동안 작품이 실린

2) 선행연구자에 의해 최근 김정한의 문학장 복귀라는 표현보다 김정한의 문학 활동 연속성을 높이려는 표현이 더 안정적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지적된 바 있다. ““1966년 10월 중앙 문단 복귀”로 기술하던 관행은 이미 김정한 관련 여러 연구 서지에서 굳어진 지 오래다. 그런 점에서 (2)에서처럼 “10월, 단편 <모래톱 이야기>를 발표하면서 활발하게 작품 활동을 하다”로 바뀐 것은 주목할 만한 진전이다.” 최미진, 『김정한 소설의 연구 현황과 과제』, 『한국문학논총』 제54집, 한국문학회, 2010. 4, 253쪽.

3) 박지영, 「1960년대 『창작과비평』과 번역의 문화사-4.19/한국세대 비평/번역가의 등장과 '혁명'의 기획」, 『한국문학연구』 45,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12

4) 백낙청, 「새로운 창작과 비평의 자세」, 『창작과비평』 1966 겨울.

5) 염무웅·김윤태, 「1960년대와 한국문학」, 강진호 외, 『증언으로서의 문학사』, 깊은샘, 2003, 418쪽.

6) 김정한의 「평지」가 실린 『창비』 10호, 「원고모집」에서 다음과 같이 원고를 모집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새로운 작품의 발굴에 주력하고 있는 본誌는 『戀愛』, 『關鷄』, 『葉禮記』 등 신인 작품을 채택하여 많은 관심을 모은 바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많이 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설, 시, 희곡, 평론 등 모든 분야의 투고를 환영합니다.”(후략)

작가들의 면모를 살펴보면 다소 어색해보이는 작가들(가령 이청준, 김승옥)이 보이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창비』가 창간 이후부터 잡지 편집주간들의 이상과 공명할 수 있는 작가들을 찾으려 고심한 것은 부인할 수 없으며, 실제 몇몇의 작가들은 이후 『창비』를 대표하는 얼굴이 되기도 하였음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⁷⁾

이 가운데 초기 『창비』에 실린 소설 작가들을 살펴보면 방영웅, 김춘복, 박태순 등의 이름이 자주 눈에 띈다. 방영웅은 『분례기』(『창작과비평』, 1967. 여름-가을-겨울)⁸⁾의 연재를 통해 『창비』가 대대적으로 발굴하여 의미부여한 대형 신인 작가였다.⁹⁾ 백낙청과 염무웅을 비롯한 『창비』 필진들은 이문구, 방영웅, 신경림, 김정한의 작품들을 통과하며 ‘민족’, ‘민중’ ‘농민’ 문학 담론을 다듬어 나갔다. 1970년대 이르러 완전한 모습을 보인 『창비』의 대표 담론들은 1960년대 중반-1970년대 중반에 이르는 문학장 분석-비평 연동 작업을 통해 만들어졌으며, 『창비』의 정체성은 이를 통해 완성된 것이다.¹⁰⁾ 더불어 서울-도시에 대응하는 지방-농촌 문학, 지금의 관점에서 ‘로컬’이 갖는 의미를 적극적으로 발견한 것도 『창비』였다.¹¹⁾

즉 『창비』는 담론의 생성장이자 한편으로는 생성된 담론의 적용과 확산의 장이었던 셈이다. 물론 농촌 문학-민족문학으로 자리매김하기 위

7) 소영현의 연구에 따르면, 이문구, 김춘복, 방영웅, 서정인, 박태순의 이름들이 자주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소영현, 『중심/주변의 위상학과 한반도라는 로컬리티』, 소영현 편, 『비평 현장과 인문학 편성의 풍경들- 1970년대 『창작과비평』을 중심으로』, 소명출판, 2018, 21쪽.

8) 초기 『창작과비평』에서 『분례기』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는 줄고, 『초기 『창작과비평』과 『분례기』의 의미』, 『한국현대문학연구』 49, 2016, 참조.

9) 물론 방영웅의 창작 활동이 『창비』의 담론에 준할만큼 질적인 우수성을 지녔다는 별론의 문제이다.

10) 『창비』가 “외래지향적 취향 같은 것을 청산”하고 “토착화 과정”을 본격화한 것은 1970년대 초였다. 백낙청 회화록 간행위원회 편, 『‘창비’ 10년-회고와 반성』, 『백낙청 회화록』 1, 창작과비평사, 2007, 131쪽.

11) “농민문학론”의 형성과 관련해서는 소영현의 앞의 글 참조.

해서는 ‘농촌’이 단지 공간적 측면에서가 아니라 “역사적 개념”으로서의 전환이 이루어진 다음이기는 하지만¹²⁾ 단지 “작가에게나 독자에게나 다 같이 시대에 뒤떨어진 지방주의로 보이¹³⁾”던 농촌, 농촌에 대한 문학을 민족문학의 경지로 끌어올리게 된 지점은 섬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문학 내 리얼리즘 전통이 유실되었다고 여겨지던 가운데에 1930년대 리얼리즘 문학의 계보를 잇는 김정한의 재등장은 『창비』로서는 반색할만한 ‘사건’이었음에 분명해 보인다. 무엇보다 김정한의 작품들은 흔히 농촌소설에 기대되는 낭만적이고 목가적인 농촌풍경에 대한 서정적 작품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 사실이다. 김정한은 수상집 『사람답게 살아가라』 중 『로맨티크』에서 다음과 같이 고백한 바 있다.

나는 일제 때, 낙동강 그리고 그 유역 지대를 멋지게 읊은 시들을 읽은 적이 있다. 풀 푸른 10리 장제니, 목동들의 흥겨운 콧노래니 하는 구절이 곧잘 튀어나오는 시들이었다.

달빛을 밟고 집으로 돌아가는 농부들의 모습도, -말하자면 ‘로맨티크’한 시들이었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시인들을 행복한 재잘꾼들이라고 여겼을 뿐, 그들의 시에서 ‘로맨티크’한 기분을 공감하기에는 나는 그 강과 그 강 유역의 사연에 너무나 소상했다. - 강물은 겨레를 기르는 젖이 되기보다 눈물로 부푸는 꼴이 되었고, 유역의 기름진 땅들은 거의 동척을 비롯한 왜사람들의 소유가 되어있지 않았던가... 철딱서니없는 시인들이 웅얼거리는 농부들은 제 땅을 빼앗기고 그것을 소작하는 거르뱅이였고, 시인들이 못내 찬양하는 소위 ‘10리장제’에 소를 먹이는 아이들은 그 소보다 못먹은 거르뱅이 아이들이었던 것이다¹⁴⁾

즉 김정한은 낙동강 유역을 그저 ‘로맨티크’하게 그리는 시인들의 단

12) ‘역사적 개념’으로서의 농촌’과 관련해서는 소영현, 앞의 글, 31-33쪽, 참조

13) 염무웅, 「농촌현실과 오늘의 문학-박경수씨작 『동토』에 관련하여」, 『창작과비평』 1970 가을, 478쪽.

14) 金廷漢 수상집, 『사람답게 살아가라』, 부산: 동보서적, 1985, 74쪽.

견을 비판하면서 신난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농민, 민중들의 삶을 주목해야 함을 역설했던 것이다. 이렇듯 리얼리즘적인 필치를 기본으로 농촌 지방의 지역성과 그 지역에 거주하는 민중들의 삶에 천착하던 김정환에 대한 『창비』의 주목은 당연한 것이었다. 게다가 작품 내에서 풍부히 사용되고 있는 경남 지방의 방언은 토착어의 의미를 중요시하고 있던 『창비』의 방향과도 일치하는 것이었다.¹⁵⁾ 즉 여러모로 김정환은 『창비』의 문학적 담론 선언에 가장 적확하고 이상적인 응답을 해준 작가 중 한 명이었던 셈이다. 김정환의 문단 복귀와 활동이 1970년 대 초반 김병걸, 구중서, 백낙청, 염무웅 등을 중심으로 전개된 리얼리즘 논의의 중심에 있었다는 지적은 따라서 단순한 채사만은 아닌 것이다.¹⁶⁾

염무웅은 몇 년 전 이루어진 한 대답에서 다음과 같이 김정환의 존재와 의미에 대해 정리하였다. 다소 긴 내용이지만 『창비』 주요 필진들에게 김정환이 갖는 의미가 정리되어 있어 참고할 만하다.

(염무웅) 김정환 선생은 꽤 오랫동안 작품활동을 쉬다가 60년대 중반 문단에 복귀하지요. 그는 우리 문학사에서 독특한 위치를 가집니다. 그는 일제강점기에도 카프에 가담하지 않고 조직 외곽에 있으면서 카프 노선에 동조를 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30년대의 저항문학과 70년대의 민족문학을 연결하는 살아 있는 고리가 김정환인 셈입니다.

또 하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70년 전후에 일대 문학사적 전환이 이

15) 『창비』 속 토속성과 관련한 논의는 소영현, 앞의 글, 39-45쪽, 참조

16) 김정환은 당대의 가장 큰 현안이었던 근대화 문제를 날카롭게 포착한 작가가 아니었던가. 60년대는 근대화가 본격화되고 그로인해 사회가 여러 가지로 변화된 시기로, 이 과정에서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외형상의 근대화가 민중들의 실제적인 삶을 향상시키지 못하고 왜곡한 점이라 하겠는데, 김정환은 이를 민감하게 포착하고 총체적 인 인간성의 회복을 통해서 진정한 근대화를 꿈꾼 것이다. 그렇기에 60년대 문학사에서 진보적 문학의 전통을 부활하고 실천한 견인차로 김정환을 평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강진호, 『근대화의 부정성과 본원적 인간』, 강진호 편, 『김정환-대쪽 같은 삶과 문학』, 서울:새미, 2002, 142쪽.

루어지고 있었고 그 전환이 뛰어난 작품의 생산으로 표현되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신경림의 『농무』와 황석영의 『객지』같은 작품의 발표는 전환의 징후이고 하나의 상징적 사건입니다. 60년대의 김수영, 신동엽, 이호철, 최인훈 등의 문학과 더불어 해방 전 세대인 김정한의 교량적 구실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밑줄 강요 인용자)¹⁷⁾

더불어 김정한의 이같은 작품 활동은 다른 작가들에게도 영향을 주어, 당대 『창비』에 농촌소설을 실었던 『쌈짓골』의 작가 김춘복의 경우 김정한의 『모래톱 이야기』를 보고 “아 이런 것도 되는구나” 용기를 얻었으며, 특히 김정한의 직접적인 격려에 힘입어 작품을 창작할 수 있었음을 고백한 바 있다.¹⁸⁾ 이후 김정한은 첫 선집을 ‘창작과비평’ 출판사에서 펴 내기도 하며 『창비』와의 인연을 오래도록 이어나간다.

『창비』에 실린 김정한의 작품은 소설 4편(『평지』, 『창작과비평』 10호, 1968 여름/『뒤틀기미 나루』, 『창작과비평』 15호, 1969 가을, 겨울/『어둠 속에서』, 『창작과비평』 19호, 1970 겨울/『회나뭇골 사람들』, 『창작과비평』 29호, 1973 가을)과 특집 논단 1편(『민중과 함께해온 잡지』, 『창작과비평』 71, 1991)으로 확인된다.¹⁹⁾ 이 글에서는 『창비』에 실린 김정한의 글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는 한편, 주로 1960년대 중반-1970년대 초반을 중심으로 『창비』에 실지 않은 김정한의 다른 작품, 동시기 『창비』에 실린 평론가, 소설가들의 글과 작품들도 나란히 놓고 이들의 위치를 가늠해보고자 한다.

17) <대담>, 『길을찾아서』, 『한겨레』, 2014.11.23.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665725.html#csidx4aa73343ac7da759dc480d6384fc4>

18) <좌담> 김춘복, 송기숙, 신경림, 홍영표, 엄무웅, 『農村小說과 農民生活』, 『창작과비평』 12, 1977, 4-5쪽.

19) 이중에서도 농촌, 농민 소설의 범주에 속하는 작품은 『평지』와 『뒤틀기미나루』 정도가 해당되는 것으로 보인다.

2. 이중 소외되는 농촌과 (농촌)민중의 비극성

앞서 정리했듯 김정한이 『창비』에 처음 실은 작품은 『평지(油菜)』(『창작과비평』, 1968)였다. 이 작품은 김정한이 해방 후 문학장에 재등장하며 창작한 작품인 『모래톱 이야기』와 많은 유사점을 지니고 있어 자주 같이 묶어서 이야기된다. 김정한은 『평지』에서 유채밭이 펼쳐진 낙동강 하구둑을 배경으로 그 공간을 삶의 터전으로 삼은 사람들을 모습을 빚진하게 묘사, 관찰하고 있다. 주지하듯 김정한에게 있어서 낙동강이라는 구체적 지방이 갖는 의미는 지대한 것으로 김정한의 주요 작품들이 낙동강 유역을 배경으로 창작된 바 있다.²⁰⁾

『평지』 역시 낙동강변을 대상으로 한 다른 작품들처럼 예의 민중-유력자, 수탈자의 선명한 대립 구도를 축으로 삼아 작품의 배경이 되는 해당 공간의 역사적 특수성에 주목하는 한편, 사회 기층 집단인 농민의 비참한 삶을 고발하고 있다.

때마침 독 위를 신나게 지나가는 진해행 임시 열차가 그들의 이야기와 일손을 함께 떼게 했다. 한참 벚꽃철이라고 내는 임시 열차인 만큼, 창마다 내다보는 화려한 차림의 모습과 얼굴들이 한결 아름답고 명랑해 보였다. 그것은 마치 흙두더지 비슷한 이 고장 농사꾼들과는 아주 딴 나라 사람들 같기도 했다.

그러나 지나가는 그들에게는 어쩔 듯이 차게 샛노란 평지꽃 속에서 일을 하는 이 쪽 풍경도 어지간히 아름답고 부러웠을지도 모른다. 뿐만 아니라 더러는 영숙이와 태식의 쉼타 차림을 보고 근대화되어 가는 농촌이라고 만족스럽게 생각했을지도 모른다.²¹⁾

20) 김정한 작품을 로컬리티의 영역에서 논의한 연구 중 본고에서 주요하게 참고한 글들로 조갑상, 『요산 김정한 소설과 부산』, 『현대소설연구』 35호, 2007; 전성욱, 『장소사랑과 지역문학의 논리-김정한 소설의 낙동강을 중심으로』, 『동남어문논집』 제18호, 동남어문학회, 2004; 문재원, 『요산 소설에 나타난 장소성』, 『현대문학이론연구』 제36집, 2009를 들 수 있다.

21) 김정한, 『평지』, 『창작과비평』 10호, 1968 여름, 185쪽.

위 인용은 작품 초 진해행 관광열차 속 사람들과 유채밭에서 일하는 「평지」의 주인공인 허생원 가족이 한 프레임 내에서 겹쳐지는 장면이다. 기차를 가운데 두고도 완전히 다른 처지에 놓인 작품 속 인물들을 그려 내는 위의 장면을 통해, 작가가 당대 한국사회가 산업화 과정을 경유하면서 사회 구성원들도 각자 계급적 분화 과정을 겪고 있음을 예민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상징적 장면에서 대비되는 인물군들은 도시 상층 관광객- 농촌농민(허생원 가족)이다. 일제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통과해 오면서 한국 사회를 이루는 구성원들 간에 경제적 계급적 격차는 그리 크지 않았다. 그러나 1960년대를 지나면서 바야흐로 도시-농촌 간 지역적 격차, 도시 내, 농촌 구성원들 사이에서도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 사이의 격차가 발현되어가던 상황이었는데 김정환은 위의 기차 장면을 통해 이를 극적으로 포착해내고 있는 것이다. 이 가운데서도 농민이 한국 사회 내에서 대부분 하위계층을 이루고 있었다는 점에서 농민이 계급적으로도 ‘민중’이며, 정치적, 소외론적 입장에서조차 민중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농민-민중이 겹쳐지는 지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²²⁾

물론 농민들이 비교적 계급적으로는 하위계층에 놓이고, 김정환의 소설 속 인물들처럼 특정 국면에서 저항적 성격을 띠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가 흔히 ‘농촌’, 그리고 ‘농민’을 동일

22) 한상진은 1970년대 들어 발생한 민중논의를 계급론적 접근과 소외론적 접근이라는 두 가지 방향으로 나누어 논의한다. 한국에서의 민중 논의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민중 개념이 발견되는데 하나는 민중을 생산 노동자, 도시 빈민, 농민 등으로 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민중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지배수단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다양한 집단들로 보는 것이다. 소외론적 입장을 대표하는 논자는 한완상이다. 한상진은 한완상이 계급 노선을 탈피하여 민중개념을 보다 복합적으로 구성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였다. 한완상은 민중을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에서 볼 것을 제의하면서 이 관계를 다시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수준으로 나눈다. 따라서 민중은 정치적 통치 수단으로부터 소외된 집단, 경제적 생산 수단으로부터 소외된 집단, 그리고 문화 수단으로부터 소외된 집단으로 구성된다. 한상진, 『민중의 사회과학적 인식』, 문학과지성사, 1987, 20쪽.

한 속성을 가진 집단이라고 상정하는 오류를 범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농촌은 다종다양한 상황 아래 계급적 상황도 다르고, 그만큼 다양한 삶의 목적을 지닌 사람들이 속해 있는 공간이다. 이는 1960년대에 이르러 ‘농촌근대화’, ‘농업근대화’라는 국가적 명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농촌 구성원들의 처지가 점점 분화되면서 더욱 심화되게 된다.

『평지』에서 허생원 가족이 비극을 겪게 되는 결정적 원인이 되는 것은 베트남전에 파병 나갔다가 결국 죽고 만 큰 아들의 일이 아니다. “휴면법인재산”인가 뭔가가 되어 있는 그 평지밭들이, 별안간 ‘농업근대화’의 물결을 타고 어떤 유력자에게로 넘어간다는 소문이 마침 자자했기 때문이었다.”(밑줄 강조 인용자)²³⁾에서 보듯 허생원이 일생을 바쳐 땀 흘려 일하며 삶의 터전으로 삼은 유채밭을 근대화의 명목하에 빼앗길 상황에 놓인 것이 인물의 파국을 부르는 결정적 계기로 제시된다.²⁴⁾ 당시 농업분야에 몰아닥친 농업근대화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작가의 시선은 주목을 요한다. 이런 점에서 흔히 같이 묶여 이야기되는 『모래톱 이야기』와는 다소 차별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술이 알맞게 되었을 때, 청년신사는 노래를 중지시키고, 예의 청산유수 구변을 토하기 시작했다. —농촌 경제가 어떠니, 구태의연한 영농 방법을 버리고 근대화를 해야 되느니,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들의 비상한 각오가 필요하느니, 또 도시에 주택단지 공업단지가 서듯이 농촌에는 식량단지, 채소단지, 심지어 돼지단지 까지 있어야 하느니 등, 그 야말로 먼 앞날을 내다보는 유익한 얘기들이 꼬리를 물 듯 계속되었다.

23) 김정환, 『평지』, 『창작과비평』 10호, 1968 여름, 184쪽.

24) “땅의 강탈은 단순히 밥그릇을 빼앗는 식의 박탈이 아니다. 폭력적으로 감행된 땅의 박탈은 근대화 자체의 노골적인 야만성을 그대로 보여준다. 이것은 근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토지 개혁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사실 과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김경원, 『리얼리즘 문학의 공간성과 역사성』, 강진호 편, 『김정환-대쪽같은 삶과 문학』, 서울: 새미, 2002, 221쪽.

옛날에는 권업계 서기요. 지금은 산업계 서기들이 하는 말을 수타 들어왔기 때문에, 허생원도 대강 짐작은 갔었지만, 결국 귀에 남는 것은 무슨 단지 단지 하는 새로운 말뿐이고, 청년이 말하는 <먼 앞날> 보다 우선 코 앞에 다가 있는 <사는 문제>가 더 절박했다. <중략>

「직, 이곳 하천부지 권인데 이번 정부 시책에 따라서……」

청년은 <직>이라는 말을 곧잘 썼다. <직>하고는, -정부의 시책에 따라 그곳에 새로운 농업단지를 조성키 위하여, 그 방면에 연구가 깊으신 서울 모 유력자가 그 일대의 <휴면법인토지>를 도통 쓰게 되었다는 통고 비슷한 말을 했다. 그리고 능글맞게 덧붙여서, -위낙 이 지방 연고자들의 사정을 잘 짐작하시는 분이 돼서, 섭섭지 않을 정도의 위자료랄까 동정금이랄까를 내게끔 돼 있다는 말까지 했다. 말하자면 안내도 될 걸 그런 선심까지 쓴다는 말투였다.²⁵⁾

자리를 마련한 반장, 서울 유력자 측 인사인 청년 신사, 허생원의 처지가 부각되는 위 인용문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듯, 1960년대 한국사회 전 분야에 밀어닥친 근대화의 요구는 농업분야에도 어김없이 문제적인 방식으로 행해지고 있었다. 당시 정부는 1962년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함과 동시에 1962년 ‘농산물 5개년 증산계획’을 수립, 발표하였다. 이어 1967년 ‘농업기본법’을 제정하면서 농업 생산량의 확충, 식량 자립화를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산업근대화가 주로 도시를 중심으로 국가 주도로 다소 급격한 방식으로 진행되면서 많은 문제를 낳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소위 농업근대화 역시 그 주체가 되어야 할 농민이 소외된 형태로 관의 주도로 폭력적인 방식으로 자행되면서 문제가 되었다.²⁶⁾ 작게는 농촌 지역 주거개선에서부터 농업기계화, 협업단지 마련 등으로

25) 김정한, 앞의 작품, 189쪽/ 조갑상·황국명·이순욱, 『김정한전집』 3, 작가마을, 2008, 77쪽. (DBpia에 올려진 「평지」는 186-187쪽, 190-191쪽이 공백으로 올라 있어 공백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은 조갑상·황국명·이순욱, 『김정한전집』 3, 작가마을, 2008을 참고했다.)

26) 金玟錫, 「박정희 정권기 농촌근대화촉진법 제정의 결과와 성격」, 『한국근현대사연구』, 91, 2019 169-200쪽, 이는 『창작과비평』이 주목한 또 한 명의 농촌소설 작가인 김춘복의 「쌈짓골」에서도 형상화해 낸 당대 농촌사회의 문제점이었다.

대표되는 정부의 이같은 시책은 실제 농촌 지역의 실상과 동떨어져있거나 그 추진 과정에서 농촌 구성원들과의 충분한 협의과정 없이 진행되면서 끊임없는 마찰을 빚었다. 『평지』에서도 농촌근대화의 명목 하에 결국 목숨과도 같던 유채밭을 빼앗기고 마는 허생원의 모습에서 당대 농업정책의 실패의 한 장면을 생생하게 목도하게 된다. 이같이 농촌하위계층의 상황을 누구보다도 신랄하게 고발하고 있는 김정환의 작품은 『창비』 편집인들과 동인들에 의해 고평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더불어 김정환의 다른 소설들처럼 『평지』 또한 인물들의 비극적인 운명이 두드러지는데 이는 등장인물들에 의해 숙명론적인 것으로 여겨지기도 한다.²⁷⁾ 주인공인 허생원은 ‘시지프스’ 신화 이야기를 아들인 태식으로부터 듣고 그 시지프스의 운명과 자신의 처지를 빗대서 생각한 후 처량해한다. 아들 용이의 전사-토지 몰수-허생원의 방화로 이어지는 줄거리와 작품의 결말을 그려내는 작가의 시선 또한 상황에 대한 어설픈 낙관 대신 주인공이 겪는 철저한 비극의 형상화에 주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낙동강변을 다루는 『창비』에 실린 또 다른 작품인 『뒤틀기미 나루』 또한 비극적이기는 마찬가지이다. 『뒤틀기미 나루』는 정확히는 “삼랑진을 더 거슬러 올라간 낙동강 상류계, 지류인 밀양강이 본류에 굽어드는 강”²⁸⁾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작품이다. 이곳에서 대대로 사람들로 하여금 강을 건너주는 사공일을 했던 박노인과 그의 일을 이어받은 아들 춘식, 며느리 속득이를 포함 그 가족이 처한 비극적 상황을 다루고 있다. 이 작품은 나루터의 뱃사공인 가족이 주요인물이라는 점에서 『모래톱 이야기』의 건우네를 떠올리게 한다. 새 식구가 된 속득이와 함께 부지런히 가계

27) 『창비』에 실린 김정환의 또 다른 소설 『회나뭇골 사람들』(『창작과비평』 1970 겨울)도 마찬가지이다.

28) 김정환, 『뒤틀기미 나루』, 『창작과비평』 15, 1969년 가을·겨울, 525쪽; 김정환은 ‘뒤틀기미 나루’가 실제 지명임을 밝힌 바 있다. 김정환 수상집, 『사람답게 살아가라』, 295쪽.

를 꾸려나가며 좀 더 나은 미래에 대한 희망에 부풀어 있던 박노인은 어느날 밤 다른 곳에서 발생한 소요현상을 조사하는 조사원들이 배를 빌린 일과 맞물려 아들의 생사를 알 수 없게 된다. 뒤이어 남편의 뒤를 이어 나룻터 일을 하던 며느리 속독이 괴한으로부터 겁탈의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의도치 않은 살인을 저지르게 되어 중형을 선고받고, 박노인은 결국 회나무에 목을 매고 만다는 이야기이다.

이 작품에서는 박노인의 삶이 갖는 비극성과 더불어 며느리인 속독이 겪는 수난을 통해 하층여성농민의 삶이 드러나고 있다.²⁹⁾ 한국문학에서 많이 발견되는 여성 수난사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도 있으나, 방영웅의 『분례기』나 그 분석에서 보이는 여성의 대상화, 건강한 생명성 등으로의 포장이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은 다른 농민 소설들과 김정한의 소설이 차별화되는 부분이다.³⁰⁾ 즉 농촌의 생명력을 강조하고 긍정적 방향을 제시할 목적으로 여성인물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3. 『창작과비평』의 농촌, 농민 소설의 기획

백낙청은 1966년 『창비』 창간호에 실은 「새로운創作과 批評의 姿勢」에서 한국문학의 전망과 과제에 대해 논의한다. 이 글은 세계문학과 대비되는 한국 문학의 위치와 현실 등에 대해 문제제기하면서 한국적인 문학이란 어떤 것이어야하나와 관련, 다소 포괄적인 문제의식을 내포하고 있다. 백낙청의 이 글은 창간 당시 『창비』의 위치와 이후 잡지가 나

29) 당대 여성농민들의 삶의 모습과 관련한 (지식인) 남성들의 시선과 관련하여서는 줄고, 앞의 글 참조.

30) 이후 『수라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김정한의 여성인식에 대해서는 당대 다른 작가, 비평가들에 비해 우호적인 평가가 내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상경, 「한국문학에서 제국주의와 여성」, 강진호 편, 『김정한-대쪽같은 삶과 문학』, 서울:새미, 2002, 227-250쪽.

아갈 길을 예비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백낙청은 이 광수를 비롯한 과거 작가들이 남긴 한국 문학의 유산을 어떤 방식으로 넘어서는 것인가도 당면한 과제로 제시하였다. 특히 역사소설 창작 전 이 광수의 작품들인 『무정』과 『흙』을 전범이자 극복해야 할 과제로 제시하고 있는데, 『흙』의 경우 농촌소설의 범주에서 의미를 지니는 작품임과 동시에 극복해야 할 작품으로 지적된다. 백낙청은 『흙』이 갖고 있는 관조적 엘리트주의를 비판하면서 농촌소설이 보다 농민들의 실제 삶에 밀착한 작품이어야 할 것을 역설하였다. 즉 이 글에서 백낙청은 『흙』의 비판을 통해 농촌소설을 포함, 당대 소설 창작이 가야 할 바를 간접적으로 제시하였다. 『창비』가 일관되게 ‘민중 중심으로’, ‘민중 내에서 함께’를 강조했다는 점을 상기할 때, 낙동강 유역의 농촌 농민, 민중들의 삶에 집중하고 있는 김정한의 작품이 고평되는 것은 일견 당연한 일이었던 것이다. 『창비』의 필진들이 의미부여한 또 다른 농촌소설 작가인 김유정의 작품과는 다소 성격을 달리하긴 하지만, 김정한의 작품은 『창비』 농민소설의 바로미터로서 기능하고 있었던 것이다.

『흙』이 농촌소설 내에서 의미를 지니는 작품이지만, 보다 농민의 입장에서 서술될 필요가 있는 한계를 지닌 작품이라는 점은 『창비』의 필진과 편집인들이 공명하고 있는 바였다. 김병걸은 “春園의 『흙』처럼 下向的 계몽 사상이 농촌현실을 개선하는 데 보탬을 주긴 커녕, 어떤 의미에선 도리어 농촌을 모독하는 - 도시적 인텔리의 센티멘털리즘이라는 것을 김정한은 잘 알고 있다.”³¹⁾로 일갈하였다. 즉 김정한 작품이 지니는 농촌 현실 밀착, (비)엘리트주의는 『흙』과 『상록수』를 비롯, 기존 농촌소설이 갖고 있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것으로 여겨졌던 것이다.

위 언급에서 확인할 수 있듯 『창비』의 주요 필진이었던 김병걸은 1972년 봄, 『창비』에 실은 『김정한 문학과 리얼리즘』에서 김정한의 작품

31) 김병걸, 『김정한 문학과 리얼리즘』, 『창비』, 1972 봄, 102쪽.

세계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고 있어 주목된다. 김정한 작품의 주제와 인물의 특성, 김정한 소설의 언어와 문장의 의미에까지 주목하고 있는 이 글은 특히 제목에서 보듯 김정한 문학의 리얼리즘적 성격에 의미를 부여하였다. 공꾸르 형제, 플로베르와 발자크, 톨스토이 등과의 비교를 통해 필자는 김정한의 작품이 “群衆의 삶의 한복판에서 체득한 肉化의 세계”라며 “요컨대 그는 눈부시게 다이내믹한 리얼리스트”³²⁾라 결론 내린다. 나아가 톨스토이의 작품을 평하는 루카치의 견해를 빌려 이전 리얼리즘 전통을 계승하고 있는 김정한 문학은 톨스토이 문학에 가깝다고 평한다. 김병걸의 이런 견해는 당대 러시아 농민의 삶에 주목한 톨스토이와 김정한을 나란히 놓은데서 비롯한 것으로 김정한의 농촌, 농민소설을 누구보다 곁들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나아가 김정한 작품이 ‘경향소설’ 같다는 일각의 의견에 적극 반론을 제기하면서 톨스토이를 포함한 러시아 문학이 ‘경향문학’의 성격을 띠고 있음을 지적한 하우저를 재인용하여 “사회적 현실의 굳건한 관찰자이며 진리와 정의의 성실한 기수이며 자본주의에 대한 기탄없는 비판자인 톨스토이의 문학이야말로 경향문학의 전형”³³⁾이라는 주장을 펴면서 김정한의 문학을 적극 옹호하는 데까지 이르고 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朴榮濬, 吳泳壽, 吳有權, 朴敬洙, 河瑾燦, 柳承畦 작품이 김정한 문학의 동적 차원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된다.”³⁴⁾며 당대 다른 농촌, 농민 소설 작가들에 비교하여 김정한의 작품에 다시금 의미부여하고 있다.

『창비』의 주요 필진인 신경림 또한 『창비』의 지면을 빌려 김정한 문학에 의미를 강조한 바 있다. 김정한의 소설이 “농민의 切迫을, 진보적

32) “객체를 정적 상태에서부터 동적 상태로 끌어올리는 다이내믹한 리얼리즘의 이론은 그 변증법적 가동성에 의하여 우리를 딱딱하고 메마른 형이상학적 객체 파악의 고정성에서 구해내는 동시에, 우리를 객체의 영원한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준다.” 112쪽.

33) 위의 글, 105쪽.

34) 위의 글, 72쪽.

지식엘리트의 역사의식을, 志士의 분노를, 작가의 책임을 - 이 모든 것을, 농촌을 무대로 해서 동시에 말해 주고 있다.”면서 그의 소설이 농촌을 소설의 소재로만 다루는 방식을 넘어섰다고 평가한다.³⁵⁾ 특히 김정환이 크게 농촌사회가 직면한 두 가지 문제인 토지문제와 빈곤문제를 본격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특히 일제강점기-해방 직후 토지개혁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농촌의 토지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못한 점에서 “농촌빈곤의 책임” 소재가 밝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廉武雄) 흔히 농촌이라 하면 단순히 도시와 대립되는 지역적인 의미에서만 논의되기 쉬운데, 물론 그것이 일차적인 의미에서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우리가 문학 지식 혹은 지적인 토론에서 농촌이라고 하면, 그것은 지역적인 개념이라기보다. 역사적인 개념입니다. 다시 말하면 서구 열강들의 식민 정책으로 인한 제국 주의를 앞장서서 받아들인 것이 후진국의 도시이고, 이에 대해서 민족적인 전통을 지키고 우리나라 사람의 바탕을 잃지 않은, 말하자면 민족적인 근거지가 농촌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³⁶⁾

그리고 위 인용에서 보듯 염무웅은 김정환의 작품들을 경유하여 농촌을 역사적인 개념으로 격상하고 농촌문학-민중문학으로의 담론의 전회를 이끌어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³⁷⁾ 이렇듯 『창비』의 필진들은 당

35) 신경림, 『농촌현실과 농민문학- 그 전개과정에 나타난 문제점』, 『창작과비평』 1972.여름.

36) 염무웅·임중빈, 『김정환 문학의 평가』, 김정환, 『인간단지』, 한얼문고, 1971, 349쪽.

37) 염무웅이 김정환 소설을 ‘농촌문학’으로 범주화한 근거는 후진국 근대화론에 입각한 농촌론에 놓여 있었다. 이렇게 해서 농촌은 후진국 근대화의 새로운 가능지대로, 농촌문학은 민족의 탈식민적 지향을 실현시킬 수 있는 구원지대로 의미화되기에 이른다. 이러한 논리적 역전을 통해 ‘후진국에서 문학을 한다는 것’이 곧바로 “새것복합의 질환”으로 귀결하지 않으며 오히려 거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의 지대일 수 있는 이유를 얼마간 확보하게 되는 것은 일종의 부

대 한국의 농촌상황이 서정적 필치로 그려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님을 절감하면서 한국 농촌이 갖는 이같은 뿌리 깊은 문제점을 적실하게 표현해내고 있던 김정한의 존재에 새삼 주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분례기』 창작을 둘러싼 『창비』 내 논의를 볼 때,³⁸⁾ 초기 『창비』 편집진들은 이광수의 『흙』과 같은 종류의 계몽적 성격을 띤 작품은 아니더라도 ‘농촌 소설이라면 어떤 모습이어야 한다’(농촌을 다소 동질적인 집단으로 상정)는 생각을 공유하여 농촌, 농민 문학에 대한 거대한 기획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당대 『창비』의 이같은 상황은 김정한의 작품을 고평하게 하기도 하는 한편, 그의 소설이 갖는 의미를 전체적으로 독해할 수 없게 하는 장애물로도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흥미롭게도 이 시기 백낙청이 농촌소설, 리얼리즘과 관련한 자신의 문학이론을 정초할 서구의 문학이론가로 레이몬드 윌리엄스(Raymond H. Williams, 1921~1988, 이하 R. 윌리엄스)를 참고하고 있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즈음 백낙청은 R. 윌리엄스의 글을 주요하게 참조하고 있음이 발견되는데, 「로오렌스와 産業主意」(『창작과비평』1966. 여름), 「리얼리즘과 現代小說」(『창작과비평』1967. 여름)이라는 제목으로 레이몬드 윌리엄스의 논의를 번역하여 『창비』에 싣기도 했음이 확인된다. 특히 이 시기 R. 윌리엄스의 D.H 로렌스 논의를 주목하는 백낙청의 맥락은 주의 깊게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물론 R. 윌리엄스의 논의를 당시 백낙청의 생각과 등치시킬 수는 없으나 한국적 리얼리즘론과 관련한 구상을 지속하던 백낙청에게 로렌스의 리얼리즘론과 농촌에 대한 시각은 눈여겨볼 만 한 것이었다. 물론 위의 두 번역 텍스트에는 번역자인 백낙청의 직접적인 메타 언급이 없어 그의 의중이 확연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해당 텍스트를 소개하는 시점과 텍스트의 주요 내용을 짚어봄으로써 당

수적 수확이다. 소영현, 앞의 책, 36쪽.

38) 이런 부분은 『창비』에 실린 또 다른 농촌소설인 『분례기』를 둘러싼 백낙청의 논의를 통해 드러난다.

시 백낙청의 입장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³⁹⁾

백낙청에 의해 소개된 『로오렌스와 産業主意』에서 R. 윌리엄스는 영국의 산업화 과정에 대해 비판한다. 또 다른 글 『리얼리즘과 現代小說』을 통해 ‘리얼리즘’에 대해 역사적 접근을 시도하면서 리얼리즘의 당대적 의미를 재규정하려 시도한 R. 윌리엄스의 견해를 소개한다. 특히 R. 윌리엄스는 ‘개인소설’을 ‘사회소설’과 대비시키며 소설은 ‘사회적’ 맥락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버지니아 울프의 작품들을 혹평한다. ‘자연주의’ 묘사와는 차별화되는 ‘리얼리즘’의 자리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이 글의 요지이다. 심리소설이나 개인의 내면에만 침잠하는 소설을 비판적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당대, 그리고 이후 백낙청의 리얼리즘론의 방향을 짐작할 수 있다.

백낙청이 주요하게 참조한 R. 윌리엄스는 『로오렌스와 産業主意』의 문제의식을 그의 저서인 『문화와 사회』(1958), 『기나긴 혁명』(1961) 등에 이어 중요한 저작 중 하나인 『시골과 도시』(1973)에서 한차례 정돈하게 된다. 특히 『시골과 도시』에서 산업화로 인해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된 농촌 사회에 대한 심도 깊은 고찰을 수행한 바 있다. 이 책에서 R. 윌리엄스는 보통 사람들의 머릿속에 전형화된 농촌상에 문제를 제기하며 농촌이 단순화될 수 없는 이미지를 가진 복합적인 공동체이며, 특히 ‘계급 문제’가 야기되는 양상, 도시 산업화 과정에서 농촌의 위상변화를 눈여겨보아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⁴⁰⁾

즉 백낙청이 이론적 전거로 삼은 R. 윌리엄스는 농촌이라는 집단의 구성과 특징을 보다 섬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했다. 백낙청은 이 시기 한국 사회에서 도시-농촌의 문제가 더욱 심각화 될 것이라는 점을 예민하게 자각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는 윌리엄스와 상당부분 문제

39) 줄고, 앞의 글, 386-387쪽, 필자는 줄고에서 방영웅의 『분례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백낙청의 논의를 언급한 적이 있다. 비슷한 시기 농촌소설을 창작한 김정한의 작품을 분석하는 과정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된다.

40) 줄고, 앞의 글, 386-387쪽.

의식을 공유하고 있었지만, 『분레기』를 둘러싸고 농촌 소설 분석과 관련 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논의들을 살펴보았을 때 농촌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소 거칠고 허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음이 발견된다.

비평가인 백낙청이 농촌에 대한 주요한 사실들을 놓치고 있을 때(이론이 실제 현실과, 현실에 의거한 작품 창작을 미처 포괄하고 있지 못할 때) 김정한은 자신의 작품에서 농촌의 상황들을 다면적으로 그려내고 있어 주목된다. 다시 『평지』로 돌아가보면, 정부 주도의 근대화 작업에 동조하며 이를 묵인하거나 나아가 부추기는 농촌 구성원의 존재를 그려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제 강점기 농촌 묘사 시 수탈자(일제)-수탈인(우리 민족)의 단순 구도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김정한의 작품에서 농민들은 모두 절대적인 빈곤 상태에 놓여있다고보다 이미 농지를 소유한 자, 정부 정책에 동조하는 자, 어떤 물적 토대도 없는 자들 모두가 다양하게 존재하는 곳이 농촌이라는 것이 명시된다. 물론 주요하게 초점화되고 있는 것은 가장 신난한 삶을 살고 있는 농민이긴 하다. 또 허생원처럼 오히려 농업근대화라는 미명하에 정부에 의해 기존 농민들의 삶의 근거가 흔들리는 경우를 통해 농촌에 붙어닥친 반갑지 않은 새 바람도 조망하고 있다.

4. 농민 개인의 (자율적) 저항과 새로운 농촌, 농민 소설의 대두

한편 신경림은 김정한이 이전의 어떤 작가와 다르게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 자율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⁴¹⁾, 즉 농민들이 자율적으로 활동하는 모습을 그려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신경림은 『산거지』의 황거칠, 『인간단지』의 우노인, 『유채』의 허생원, 『산서동 뒷이야기』

41) 신경림, 『농촌현실과 농민문학』, 『창작과비평』 27, 1973 봄, 288쪽.

의 박노인 모두 “법의 보호나 정치권력의 인도에 의지하기보다 자율에 쫓으려 하는” 인물로 평가하는데 이는 당대 억압적인 정치권력에 ‘정치적으로’ 저항하는 개인이 탄생하는 장면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요한다는 것이다.⁴²⁾

신경림이 지적했듯 김정한 소설 속 등장인물들의 자발적, 개인적인 저항을 두고 주인공의 분노를 표출하는 형상화의 한 방식으로 이해하거나 해방이전 리얼리즘의 연장선 상에서 의미부여하는 견해도 있지만, 인물들을 둘러싸고 있는 구조적 모순을 전면화해서 직조하는데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적하는 경우도 많다.⁴³⁾ 물론 『평지』에서 월남 파병, 농업 근대화 정책에 따른 토지 몰수 등 당대 사회의 주요한 문제들이 주인공들의 운명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이 나타나지만, 작가는 이를 당시 농촌 사회를 포함, 한국 사회의 모순을 지적하는데 이르기보다 등장 인물들의 비극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장치로 이용하고 있다. 이는 물론 작품이 단편인 데서 오는 물리적인 한계 때문 일수도 있으나,⁴⁴⁾ 김병걸의 논의에서 보듯⁴⁵⁾ 리얼리즘에 대한 작가의 태도 때문으

42) 조현일, 『비상사태기의 문학과 정치- 1970년대 전반기 민중문학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60, 2016, 27-28쪽.

43) 신경림 또한 『창비』에 실은 글 (『문학과 민중』, 『창작과비평』, 27, 1973 봄)에서 김정한 문학의 한계를 지적한다.

44) 신경림은 일찍이 김정한 소설에 나타나는 “인물 설정의 공식성이 사건 전개 of 단순성”을 지적하고 “그의 소설이 갖는 이러한 취약점은 장편소설로 전개될 경우 쉽게 극복될 수 있을 것”으로 지적한 바 있다. <좌담> 金春福, 宋基淑, 申庚林, 洪榮杓, 廉武雄 외 앞의 글, 290쪽.

45) 金廷漢씨는 객관적 세계를, 마치 자연현상을 관찰하는 과학자처럼, 있는 그대로를 차분하게 기술하는 스토리·텔러가 아니다. 그의 문학은 시종일관 세계의 非理와 혹독한 정치권력의 사디즘에 대항했던 그의 認識의 치열한 싸움에서 얻어진 체험의 세계이다. 그의 문학이 폭넓은 다양성을 결하고 그래서 천편일률적이며 偏向的이라 싶을 정도로 抗拒一路인 것은, 그만큼 그가 이 어두운 시대에 있어서 작가에게 주어진 최대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즉 무엇이 휴머니즘이며 무엇이 진정 인간을 위한 正義인가를 骨髓로부터 깨닫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시대의 이념과 그 이념의 요청에 대하여 우리 문단의 누구보다도 훌륭히 대답한 작

로 보는 편이 더 적절해 보인다.

김정환의 이런 작품 창작 경향과는 별개로, 인물의 비극성을 통해 농촌 생활을 그려내는 이같은 창작 방법은, 새로운 농촌소설을 창작해야 한다는 당위 아래 『창비』에서는 차츰 극복의 대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다.⁴⁶⁾ 농촌 현실이 암울하다는 점을 그려내기보다 “짓밟히면서도 꺾이거나 부러지지 않고 꺾끗하고 줄기차게 살아남은 농민의 모습”을 그려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⁴⁷⁾ 『창비』 내에서 방영웅의 『분례기』가 고평 받았던 것이 『분례기』 속 특정 인물들이 보이는 원시적 생명력, 열린 결말의 긍정적 분위기였음을 상기해 볼 때 김정환 작품의 비극성은 『창비』 편집진들로 하여금 농촌소설의 쇄신요구를 불러일으켰던 것으로 짐작된다. 농촌, 농민 소설과 관련하여 1970년대 초-중반 염무웅, 신경림에 의해 『창비』에 발표된 글들에서 이같은 지점들이 서서히 전면화되고 있음이 발견된다.

정리하자면 농촌 구성원들이 개별적으로 겪는 비극과 자율적이지만 개별적인 저항에서 나아가⁴⁸⁾, 보다 긍정적인 길을 예비하는 등장인물의 각성과 주변 인물들과의 연대에서 나오는 조직적인 저항의 필요성을 강조하게 된 것이다. 김춘복의 『쌈짓골』과 송기숙의 『자랏골의 비가』 출간을 계기로 1977년 『창비』에 실린 좌담, 『農村小說과 農民生活』에서 농촌, 농민소설과 관련한 『창비』의 전회의 장면을 포착할 수 있다. 이 좌담

가이다. 金炳傑, 앞의 글, 112쪽.

46) 특히 김춘복과 송기숙의 작품 출간을 계기로 이루어진 앞의 좌담에서 신경림은 “농민들이 겪을 수 있었던 비극, 농민들이 당할 뻔했던 불행이란 불행은 모두 동원했다는 느낌이 들어요.”라며 농촌 소설들이 지나치게 비극의 형상화에만 초점을 두고 있음을 지적한다. <좌담> 김춘복, 송기숙, 신경림, 홍영표, 염무웅 외, 앞의 글, 12쪽.

47) 신경림이 김춘복의 작품과 기존의 농촌소설을 비교하며 한 말이다. 위의 글, 8쪽.

48) 『창비』에 실린 김정환의 또 다른 작품인 『어둠 속에서』(『창작과비평』 1970 겨울)는 일제 강점기 신임 교원의 고군분투기를 그리고 있는데 이 작품에서도 인물의 저항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려진다.

은 이전 시기 농촌, 농민 소설과 관련한 기존 『창비』의 입장이 정리되어 있음과 동시에 이후 『창비』의 향방을 가늠하게 한다는 점에서 섬세하게 살펴보아야 할 텍스트이다.

우선 이 텍스트에서 좌담 참가자들은 농촌이 절대적인 빈곤의 상황에서 벗어나 농촌 내 구성원들 간의 차이가 보다 면밀히 조망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일반 농민을 대표한 논자인 홍영표가 먼저 “절대적인 빈곤보다도 상대적으로 구조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다루어야 되지”⁴⁹⁾ 않겠냐는 입장을 펴자 신경림 또한 이에 동조하여 “홍선생님 말씀대로 상대적인 가난을 좀더 구조적으로 그려 주었으면 좋았다 하는 미흡점은 지적되어야겠지요. 농민이란 으레 가난한 사람들이요, 농촌이란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고장이다 라는 일반적인 고정관념이 깔려 있다는 느낌을 떨어버리기가 힘들어요. 이 가난이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창출되었고 농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창조적 삶에 어떻게 파괴적으로 작용하는가, 이것이 좀더 구체적으로 형상화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큼”을 지적한다.⁵⁰⁾ 나아가 이같은 인식은 오히려 농촌을 극한의 가난만이 존재하는 곳으로만 인식한다는 점에서 “관념적인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다고까지 말한다.⁵¹⁾ 즉 기존 논의들을 통해 형성된 농촌에 대한 고정관념들을 타파하고 변화된 농촌의 모습을 새로운 작품으로 그려내야 한다는 것이 논의의 요지라 할 수 있겠다. 이런 맥락에서 새마을운동 이후의 농촌의 모습을 본격적으로 그려낸 『쌈짓골』 등이 의미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는 앞서 기존 농촌사회의 분석을 통해 문제작들을 내놓은 김정환이 자신의 작품들을 통해 이미 어느정도 제시는 하였으나, 전면화, 본격화 하지 않았던 농촌 사회 내 계급의 분화와 같은 지점들을 보다 정밀히 그려내야 할 필요도 제기된다. 또한 동시에 변화한 농촌사회를 반영할 수

49) <좌담> 金春福, 宋基淑, 申庚林, 洪榮杓, 廉武雄 외 앞의 글, 6쪽.

50) 위의 글, 7-8쪽

51) 위의 글, 14쪽.

있는, 새로운 의미에서의 전형적 인물을 탄생시켜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같은 점들이 충족되어야 농민문학-민중, 민족문학으로 나아가는 『창비』 담론의 확장을 함께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이기도 하다. 염무웅의 다음과 같은 말도 새로운 농촌소설을 촉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제 우리 작가들은 농촌문학이 시대에 뒤떨어진 하나의 지방주의적 문학으로 되지 않기 위해서, 또 농촌의 특수한 정취와 풍속에만 집착하는 이른바 소재주의에 함몰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민족의 현실을 증언하고 시대의 문제에 도전하는 전(全)민족적·전문학적 싸움의 제일선에 서기 위해서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임해야 되리라 봅니다.⁵²⁾

이렇듯 『창비』는 김춘복과 송기숙, 이문구, 김정한 등의 농촌 대상 작품들을 비평의 장으로 삼아 1971년 황석영의 『객지』에 이르러 농촌문학-민중 문학과 관련한 논의가 더욱 공고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황석영의 작품은 앞서 농촌, 민중 문학이 가지고 있었던 결점들을 많은 부분 상쇄한 데 이어 민중들의 연대의 장면도 그려냈기 때문이다.⁵³⁾

5. 마무리를 대신하여

앞서 염무웅의 회고에서 보듯 『창비』의 편집인들에게 김정한은 잡지와 뜻을 함께해주는 든든한 문학 동료이자 일제강점기 리얼리즘의 명맥을 잃지 않게 해주는 살아있는 문단 원로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니는

52) 앞의 글, 40쪽.

53) 한편 백낙청에 의하면 김정한의 『修羅道』는 기존 김정한 소설의 많은 아쉬움들을 해결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백낙청, 「민족문학의 현단계」, 『창작과비평』 10, 1975 봄, 48-54쪽; 조현일 또한 김정한에 비해 황석영이 고평가되는 지점에 대해 분석하였다. 조현일, 앞의 글, 28-30쪽.

존재였다. 그리고 김정한 또한 『창비』의 이같은 편집 이념에 발맞춰 작품 활동과 활발한 사회 활동으로 깊게 공명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물론 이미 문단에 복귀했을 때가 이미 예순에 가까운 나이였다는 점에서 1970년대 이후에는 『창비』 내에서 생각만큼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은 아쉬움을 낳는 부분이다. 일제 강점기 리얼리즘 전통을 이어 1970-80년대 리얼리즘 문학 계열에 주요한 영감을 준 것은 사실이나, 새로운 차원의 농민소설, 리얼리즘 소설을 적극적으로 구현해내었다고 보기 어려운 것도 또한 아쉬운 지점으로 지적된다. 그럼에도 백낙청을 비롯한 『창비』 편집진들과 문학 내 외적으로 뜻을 같이함으로써 리얼리즘 문학 계열의 주요한 흐름을 형성했다는 점에서 김정한의 『창비』 내 문학활동의 의의를 부여 할 수 있을 것이다.

『창비』가 창간 25주년을 맞은 1991년 김정한은 『창비』에 『민중과 함께해온 잡지』라는 글을 수록하고 있다. 짧은 글에서 김정한은 그간 『창비』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가) 사실 창비가 해나온 일들 가운데 가장 칭찬받아야 할 일은 한국 문학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성실히 점검해나가면서 동시에 새로운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문제제기를 끊임없이 해왔던 것이 아닌가 싶다. 이는 민족문학 정립을 위한 논의의 활성화를 가져왔고 논쟁을 통해 민족문학의 본질을 밝히는데 적잖은 공헌을 남기게 된 것으로 안다.

나) 어떻게 보면 창비는 이 나라의 민중과 의식을 함께 해온 것으로 생각된다. 말하자면 살아있는 잡지로서의 역할을 할 만큼은 해냈다고 믿어지는 것이다. 앞으로도 창비가 민중을 저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그것이 잡지를 통해 이 나라의 민주발전과 인간해방을 위해 해내야 하는 역할이라 믿기 때문이다.⁵⁴⁾ (밑줄 강조 인용자)

또 인용문 나)에서 보듯 김정한은 『창비』가 ‘민족문학’ ‘민중문학’과 관

54) 김정한, 『민중과 함께해온 잡지』, 『창작과비평』 71, 1991, 8쪽.

련하여 창간 초기의 초심을 잃지 말아줄 것을 당부하면서 오랜 시간 뜻을 같이했던 동료로서의 감회를 드러내고 있다. 실로 김정한과 『창비』의 만남은 잡지의 이념과 실제 창작자의 창작 활동(사회 활동)이 비교적 행복하게 공명한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다.⁵⁵⁾

55) 문학장 내에서 김정한과 『창비』 사이의 관계는 『창비』의 주요 편집진들과 김정한의 공·사적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더 분명해질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 글에서는 미처 다루지 못하였다. 이후 후속 연구를 통해 민족문학작가회의의 출범과 다른 진보계열 문인 단체 내에서의 김정한의 활동 상황들을 종합해 보다 심도 깊게 논의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1. 기본자료

- 김정한, 『평지』, 『창작과비평』, 1968 여름.
_____, 『뒷기미 나루』, 『창작과비평』, 1969 가을, 겨울.
_____, 『어둠 속에서』, 『창작과비평』, 1970 겨울.
_____, 『회나뭇골 사람들』, 『창작과비평』, 1973 가을.
_____, 『민중과 함께해온 잡지』, 『창작과비평』 71, 1991.
_____, 『‘洛東江의 파숫군』, 한길사, 1978.
_____, 『사람답게 살아가라』, 동보서적, 1985.

2. 참고자료

- 강진호 편, 『김정한-대쪽 같은 삶과 문학』, 새미, 2002.
권보드래·천정환, 『1960년을 묻다』, 천년의 상상, 2012.
金玟錫, 『박정희 정권기 농촌근대화촉진법 제정의 결과와 성격』, 『한국 근현대사연구』 91, 2019, 169-200쪽.
金炳傑, 『金廷漢文學과 리얼리즘』, 『창작과비평』 1972. 봄, 95-115쪽.
김우영, 『초기 『창작과비평』과 『분레기』의 의미』, 『한국현대문학연구』 49, 한국현대문학회, 2016, 379-404쪽.
<좌담> 김춘복, 송기숙, 신경림, 홍영표, 염무웅, 『農村小說과 農民生活』, 『창작과비평』, 1977, 2-40쪽.
문재원, 『요산 소설에 나타난 장소성』, 『현대문학이론연구』 제36집, 2009, 121-148쪽.
박지영, 『1960년대 『창작과비평』과 번역의 문화사-4.19/한국세대 비평/번역가의 등장과 ‘혁명’의 기획』, 『한국문학연구』 45, 동국대 한국문학연구소, 2012, 81-128쪽.

- 백낙청, 「새로운 창작과 비평의 자세」, 『창작과비평』 1966 겨울, 5-38쪽.
- 백낙청, 「민족문학의 현단계」, 『창작과비평』 1975 봄, 35-68쪽.
- 백낙청 회화록 간행위원회 편, 「‘창비’ 10년-회고와 반성」, 『백낙청 회화록』 1, 창작과비평사, 2007.
- 신경림, 「농촌현실과 농민문학」, 『창작과비평』 1972 여름, 269-290쪽.
- 신경림, 「문학과 민중」, 『창작과비평』 1973 봄, 5-26쪽.
- 염무웅, 「농촌현실과 오늘의 문학-박경수씨작 「동토」에 관련하여」, 『창작과비평』 1970.가을, 473-491쪽.
- 염무웅 · 임중빈, 「김정한 문학의 평가」, 김정한, 『인간단지』, 한얼문고, 1971.
- 염무웅 · 김윤태, 「1960년대와 한국문학」, 강진호 외, 『증언으로서의 문학사』, 깊은샘, 2003.
- 소영현, 「중심/주변의 위상학과 한반도라는 로컬리티」, 소영현 편, 『비평현장과 인문학 편성의 풍경들- 1970년대 『창작과비평』을 중심으로』, 소명출판, 2018, 19-47쪽.
- 임환모, 「1960년대 한국문학의 분기현상」, 『현대문학이론연구』 58, 현대문학이론학회, 2014.9, 375-395쪽.
- 전성욱, 「장소사랑과 지역문학의 논리-김정한 소설의 낙동강을 중심으로」, 『동남어문논집』 제18호, 동남어문학회, 2004, 107-134쪽.
- 조갑상, 「요산 김정한 소설과 부산」, 『현대소설연구』 35호, 한국현대소설학회, 2007, 27-46쪽.
- 조현일, 「비상사태기의 문학과 정치- 1970년대 전반기 민중문학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60, 민족문학사학회, 2016, 9-42쪽.
- 최미진, 「김정한 소설의 연구 현황과 과제」, 『한국문학논총』 제54집, 한국문학회, 2010. 4, 2002. 243-272쪽.
- 한상진, 『민중의 사회과학적 인식』, 문학과지성사, 1987.

<Abstract>

The Planning and Development of Rural and
Peasant Novels
in the 1960s and 1970s

- Focusing on 『Changbi』 and Kim Jeonghan's novels -

Kim, Woo-You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udy the discussion of rural and peasant novels of Korean literature, which were born, developed, and developed in 『Changbi』 through Kim Jeong-han's works in 『Changbi』. The creation of 『Changbi』 in January 1966 and Kim Jeong-han'(김정현)s return to the literary arena in October of that year were both independent events, but it was a sign of the rise and revival of realism literature in post-war Korean literature, so it was a series of "events." As can be seen in the memoirs of the editors of 『Changbi』, Kim Jeong-han meant a lot to the editors of 『Changbi』 in that he was a reliable literary colleague who shared the will with the magazine and a living literary elder who kept Japanese colonial era realism alive. It is also confirmed that Kim Jeong-han was deeply resonated with his work and active social activities in line with the editorial ideology of 『Changbi』. In particular, it is confirmed that he created a work that nourishes the main theoretical discourse of 『Changbi』, which leads to rural, peasant novels, folk literature, and national literature. Specifically, it showed the significant presence of local

* Sejong University.

literature and rural literature in that it embodied the tragedy of their lives by focusing on the sour lives of farmers who had their base of life near the Nakdong River(낙동강). Furthermore, it provides a major reference point for the planning of new rural and peasant novels in 『Changbi』.

Key Words: Kim Jeong-han, 『Changbi』, Rural Novels, Peasant Novels, Realism Novel

■ 논문접수 : 2020년 12월 01일

■ 심사완료 : 2020년 12월 14일

■ 게재확정 : 2020년 12월 14일